신계사 복원·동시법회 '南北불심' 하나로 결집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창립 20주년 성과와 과제는



2004년 봉행한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식.


사진 위부터 창립법회(2000), 신계사 복원준공식(2007), 복원 8주년 법회(2015).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남북불교 교류의 교두보이자 불심에 기반한 민족화합의 상징으로 역할해 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올해로 꼭 20주년을 맞았다. 척박했던 불교계 통일운동 여건을 딛고 남북불교도 동시법회와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 등 굵직굵직한 활동을 통해,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난관마다 교류의 물꼬를 트며 민간교류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북측과의 교류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안으로 조직 일부 개편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는 2000년 6월 8일 조계종 불교통일사업·남북교류를 이끌어 갈 전담기구로 창립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창립법회는 남북 불자들의 불심에 기반한 통일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법석으로 봉행됐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을 종재로, 포교원장 정련 스님을 본부장으로 모신 가운데, 숭산, 지관, 월주, 종하, 오현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이 고문으로 함께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민추본은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청산하고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민족이 새로운 화합과 평화의 공동체로 자리 매겨지기를 기원하고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2000년 조계사서 창립
당대 선지식 대거 참여
악화 일로 남북관계 속
인도 지원 등 물꼬트며
"민간교류의 선도" 평가
올해 조직 개편 예정도

이를 증명하듯 창립 이듬해 3월, 민추본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민족화합과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부처님오신날 즈음 첫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조계사에서 봉행했다.

남북불교도동시법회는 이후에도 남북불교간 교류의 상징이자, 남북 불자들의 신심과 전통문화의 동질성을 토대로 남북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매개가 돼 왔다. 비록 양측 정부간 관계에 따라 한 자리에서 봉행되지 못하거나 공동발원문조차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부처님오신날과 8.15 기념법회를 공동으로, 혹은 동시에 개최한다는 자체만으로 남북관계 현주소를 확인하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기도 했다.

민추본의 핵심적인 성과로 손꼽히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는 남북불교 교류 역량의 결집체이자 남북화해협력의 결과물이다. 금강산 4대 명찰 중 하나인 신계사는 한국전쟁때 소실돼 주춧돌만 남은 폐허 상태였다. 남측 조계종 민추본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은 2000년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공동복원불사를 추진, 2004년 4월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07년 10월 복원된 신계사를 낙성했다.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낙성법회에서 "남북의 목재와 물, 돌과 흙이 하나로 모여 우리민족의 성지로 거듭났다"며 "금강산을 통일의 상징으로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북한 사찰 및 민족문화재 단청불사', 북한 사찰 및 문화재 전수조사, 지속적인 대북인도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그럼에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되면서 지난 10여 년간 대북협력사업은 물론, 남북간 교류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등 민추본의 역할도 크게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민추본이 창립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추본을 중심으로 한 종단 안팎의 여건은 물론이고, 조불련도 북측 방침에 따라 공식적인 교류 창구를 닫아 걸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추본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일부 조직개편을 통해 인적 구성과 조직 비전 등에 대한 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한·스 문화교류 중심 (사)마하위하라 창립

5월 23일 창립총회 진행
양국불자 함께할 공동체
한국불자 중심으로 첫발

아산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 스리랑카) 사원이 한국과 스리랑카 불자들의 문화교류를 위한 토대로 거듭날 전망이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5월 23 한국불자들을 대상으로 봉행한 '부처님오신날 웨삭데이 법회'에서 사단법인 마하위하라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사단법인은 담마끼띠 스님을 이사장으로, 고문 공운 스님, 남부현 선문대 교수, 박인성 동국대 교수, 이정숙 울산 자모회장 등이 이사로 선임됐다. 감사에는 조태진 변호사와 인천 이혜영 회원이 선출됐다.

이날 창립한 사단법인 마하위하라는 우선적으로 한국불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향후 스리랑카 불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단법인을 추가로 설립해, 마하위하라 사원에 기반한 여러 가지 교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회원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상호 교류를 위해 마하위하라 사원은 매주 주말 정기적으로 봉행하는 법회와 함께, 매년 설날행사 및 체육대회, 카티나(가사공양) 법회, 웨삭데이 법회, 방문법회를 추진 중이다.

불교 및 인문학 강좌,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를 통한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전통악기 배우기, 전통요리 배우기 등 양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한 영어교육과 한국인을 위한 신할라어 교육도 계획 중이다.

사단법인 마하위하라는 한국·스리랑카 문화교류 및 불교와 명상 수행에 관심있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담마끼띠 스님은 "한국과 스리랑카 불자들이 각각의 문화에 기반한 신행생활을 하는 동시에 불교를 매개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양국 불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동국대 교수들 '제자사랑 릴레이' 눈길

법대, 사과대도 2500만원 기부

코로나19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제자들을 위한 동국대 교수들의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 소속 교수들은 5월 24일 제자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기부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동국대 총장실에서 이뤄졌다. 이번 모금액은 법과대학 1000만원, 사회과학대학 15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이다.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제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장하용 사회과학대학장은 "이번 기부가 제자들의 학업과 생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기부 릴레이가 확산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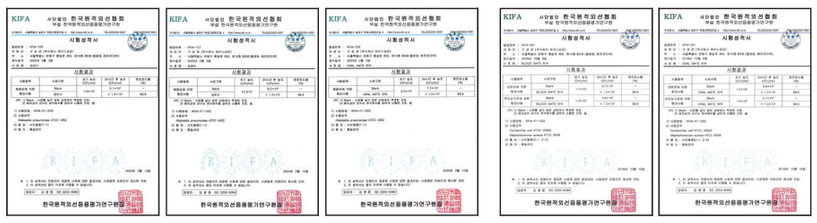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많은 단과대학에서 자발적으로 기부 릴레이를 이어주고 계심에 감사드린다. 교수님들께서 모금해주신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윤성이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곽채기 교무부총장, 김관규 연구부총장, 김애주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해 강동욱 법과대학장, 장하용 사회과학대학장, 김형용 사회과학대 부학장, 임규철 법학과 학과장, 강삼모 경제학과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왼쪽부터 장하용 사과대학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강동욱 법대학장.

한편, 그동안 동국대 제자사랑 릴레이에는 국어국문문예창작학과를 시작으로 공과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직원노동조합, 처부장회, 정책위원 등에서 참여했다. 제자들을 위한 릴레이 기부는 교수들이 식사 중 코로나19에서 학생들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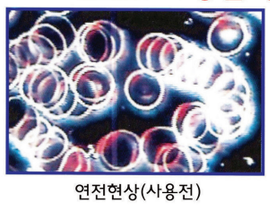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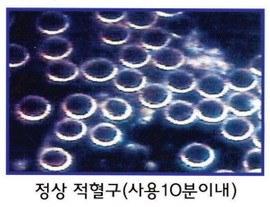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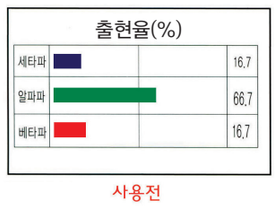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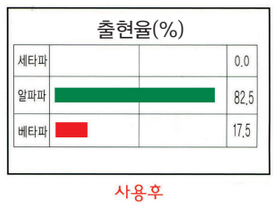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BLOOD MATE®비누로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후 재차 샤워타월을 깨끗이 빨아 짠 후 비누를 다시 묻혀서 거품을 내어 머리부터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거품으로 맛사지하면 머리거품이 가발을 쓴것 같지만 전신을 맛사지하는 동안 거품이 세포속으로 스며들고 전신의 거품도 세포속으로 스며들며 거품이 없어지면서 허리통증, 어깨, 목아픔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지고 다리에 쥐가 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 않아도 거품으로만 마사지해도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투명한 피부는 물론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의 효과가 있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대장균·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 후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 예방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과음 시에는 양치 후 먹으면 속이 빨리 편안해지고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잇몸이 튼튼해지며 이나 잇몸이 아플 때에는 아픈 부위에 치약을 그대로 발라만 줘도 밤새 통증이 사라집니다. 팔과 다리에 피가 나는 정도의 상처에 치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덮어 주었는데 통증도 없고 3일이 되니 깨끗이 상처가 나아버린 체험을 했습니다.

폐렴균·대장균·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저녁 식사 뒤 양치 후 삼켜버리면 입안의 세균이 없어짐은 물론, 구강부터 항문까지 건강해지고 매일 고질적인 구취까지 없어져 입안이 개운한 것이 특징입니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